

# 주택정원의 공간구성과 수목식재 특성에 관한 연구

염성진 · 서윤희 · 홍진표 · 조동길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 I. 서론

정원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주택에 딸려 있는 마당과 텃밭을 공통적으로 의미하지만, 정원이란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개발시키고, 꽃과 나무, 과일과 채소 등 볼거리, 먹을거리의 재배로 공동체의 복지와 건강은 물론 다양한 농업기술과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와 희망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류근석, 2006; 加藤 郁理 등, 2011). 이렇듯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주택정원에 대해 기존의 공간적 의미인 전체의 대지에 주택을 짓고 난 나머지 땅인 비건폐지만이 아닌, 주택이 놓여 진 장소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호관련 되어진 곳(환경과조경, 1994)으로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성을 갖는 공간으로 해석되어진다. 즉, 주택에 있어서의 정원은 휴식, 여가, 활동과 같은 생활에 밀착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川根あずさ 등, 2000)임과 동시에 주택의 소유주의 취향, 이상향 등과 같은 심리적인 표출의 공간, 그리고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제공하는 공간(内田 均 등, 2002)이다. 이렇듯 주택정원의 수요증가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정원조성에 대한 정보, 지식의 전달은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택정원의 공간요소와 식재유형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여 주택정원의 계획 및 설계, 주택정원 관련 연구에 있어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4년 6월부터 2014년 9월에 걸쳐 과천(5), 용인(14), 양평(4), 광주(4), 일산(3) 일대의 30가구의 주택정원을 대상으로 각 가구별 방문조사형식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 정원의 면적과 시설물, 식재현황을 실측하여 기록하였다. 두 번째, 실측을 통해 수작업으로 완성된 평면도를 Auto Cad를 활용하여 디지털도면화 하였다. 현장사진과 디지털화 시킨 도면을 기반으로 주택정원의 공간구성요소, 식재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택정원에 있어서의 공간구성요소(빈도), 식재(수종 및 수량)에 있어서의 특징, 공간구성(면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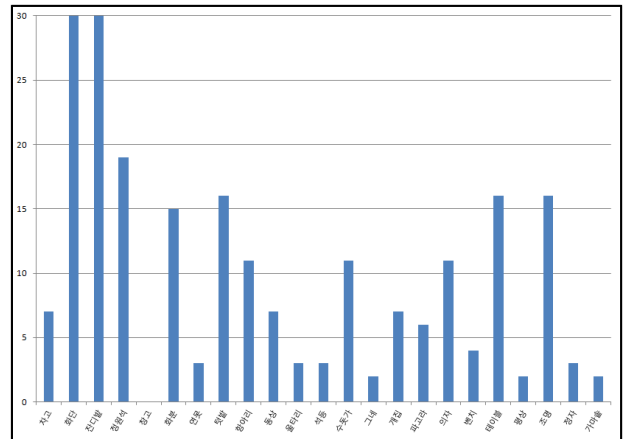


그림 1. 주택정원의 공간구성요소

특징을 분석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공간구성요소

공간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조사된 모든 시설물의 유무에 따른 분류를 통해 선호하는 공간구성요소에 대해 파악하였다. 화단, 잔디밭의 경우 30개소에서 공통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도입되고 있는 공간구성요소로는 정원석, 텃밭, 테이블, 조명이, 세 번째로는 화분, 향아리, 의자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단과 정원조성에 있어서 경관을 형성하는 잔디밭의 경우 모든 주택정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원에 있어서 경관을 형성하고 관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요소가 주를 이루며, 이용을 위한 공간 및 시설물,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시설물이 공간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로 판단되어진다.

### 2. 식재

각각의 주택정원의 식재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40종의 수종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교목류가 32종, 관목류가 17종의 형태로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PJ01011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표 1. 주택정원에 식재된 수종 현황 및 분포

성상	출현종(수량)		출현종수	총 수량	비율(%)
교목류	상록	소나무(156), 주목(60), 가이즈까향나무(12), 구상나무(1), 동백나무(2), 섬잣나무(3), 아왜나무(4), 측백나무(1), 향나무(13)	9	252	30.54
	낙엽	감나무(13), 개오동나무(3), 계수나무(2), 꽃사과(1), 단풍나무(42), 대추나무(12), 때죽나무(1), 무화과나무(3), 목련(11), 모과나무(1), 배롱나무(16), 복사나무(1), 산수유(1), 살구나무(1), 세열단풍나무(1), 오동나무(7), 왕방울사과나무(1), 왕벚나무(8), 자귀나무(1), 지두나무(1), 자작나무(74), 층층나무(1), 팔배나무(1)	23	203	24.48
관목류	상록	눈향나무(1), 사철나무(85), 영산홍(27), 회양목(49), 눈향나무(14)	5	176	21.33
	낙엽	라이락(29), 박태기나무(1), 보리수나무(2), 삼색조팝나무(1), 앵두나무(1), 쥐똥나무(3), 명자나무(5), 산철쭉(39), 수국(15), 진달래(28), 철쭉(69), 황매화(1)	12	194	23.65
계			49	825	100.00

분포되고 있었다(표 1 참조). 교목류 중, 낙엽수는 23종, 상록수는 9종이 식재되어 상록수보다 낙엽수가 다양하게 식재되어 있었으며, 관목류 중, 낙엽수가 12종, 상록수가 5종으로 관목류에서도 역시 낙엽수가 다양하게 식재되어 있었다. 교목류에 있어서

는 내한성과 맹아력이 강하고 토양의 비옥도와 이식이 수월하며, 경관창출에 있어 탁월하여 전통적으로 선호해 온 소나무가 가장 많이 식재되고 있으며, 내한성과 내염성이 강하며, 주택의 경계 및 차폐에 효과적인 주목이 두 번째,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며, 계

표 2. 주택정원(30개소)의 정원면적 및 공간구성요소의 비율

구분	정원 면적(m <sup>2</sup> )	식재공간 비율(%)	시설물 비율(%)	텃밭 비율(%)	잔디 비율(%)
site 1	253	50.6	0.2	4.0	45.3
site 2	148	50.7	12.2	16.2	20.9
site 3	369	23.6	9.2	3.3	63.9
site 4	308	35.1	30.8	14.6	19.5
site 5	139	17.3	16.5	0.0	66.2
site 6	249	16.9	5.6	12.0	65.5
site 7	402	40.7	3.6	27.1	28.6
site 8	243	48.6	26.3	0.0	24.7
site 9	738	34.1	19.1	0.7	46.6
site 10	92	31.5	16.3	7.6	51.1
site 11	687.4	39.6	3.8	0.0	56.5
site 12	445.7	41.6	0.0	9.3	49.1
site 13	240	40.9	9.1	6.8	43.3
site 14	480.4	35.9	3.3	3.9	56.8
site 15	240.2	54.4	0.0	1.1	44.5
site 16	476	42.4	11.6	3.6	42.4
site 17	781.8	30.0	8.4	0.5	61.1
site 18	785	34.4	3.4	0.0	6.2
site 19	377	57.8	4.5	0.0	37.4
site 20	746	38.5	7.2	0.0	54.0
site 21	496	53.4	10.1	0.0	36.3
site 22	264	63.6	26.9	29.9	9.1
site 23	151	43.7	29.1	0.0	26.5
site 24	374	45.7	12.0	0.0	42.2
site 25	421	43.7	11.2	0.0	44.9
site 26	258	38.0	12.0	0.0	50.0
site 27	454	53.1	18.7	0.0	28.0
site 28	168	44.6	4.2	0.0	51.2
site 29	1,072	21.5	10.2	0.0	68.3
site 30	1,604	36.3	4.1	5.2	54.4
합계	13,463	38.5	9.3	3.8	45.8

절에 따른 경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단풍나무가 세 번째로 많이 식재되어 있었다. 관목류에 있어서는 내공해성과 내한성이 강한 사철나무가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내한성이 강하고 이식이 용이한 회양목이 두 번째, 내한성과 내공해성이 강하고 적자색 꽃이 매력적인 산철쭉이 세 번째 순으로 많이 식재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는 침엽수의 비중이 높으나, 상록수의 주수를 많이 식재하여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고, 낙엽수를 다양하게 식재하여 계절에 따른 경관의 변화를 연출하기 위한 식재를 선호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3. 공간구성

정원의 공간구성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정원의 전체면적과 공간구성요소로 설정한 식재공간, 시설물, 텃밭, 잔디의 면적을 산출하였다. 정원전체면적에 대해 비율로 환산하여 공간의 구성특징을 분석한 결과, 30개소의 주택정원의 총 면적은 13,463m<sup>2</sup> 중 잔디면적은 6,163m<sup>2</sup>(45.8%), 식재면적은 5,180m<sup>2</sup>(38.5%), 시설물면적은 1,256m<sup>2</sup>(9.3%), 텃밭의 면적은 505m<sup>2</sup>(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택정원의 공간구성은 주택정원이 갖는 실용적 기능으로 대표되는 여가를 위한 잔디, 경관의 창출과 관상을 위한 식재공간, 주택정원에 있어서의 자발적 활동 중 작물을 위한 텃밭이 주된 공간구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즉, 주택정원은 소유자의 여가, 관상, 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 밀착된 공간구성을 증시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30개소의 주택정원을 대상으로 공간요소, 식재특성, 공간구성특징을 파악하여 주택정원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주거공간에 있어 주거환경, 여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간요소이자 주민에게 있어 최소단위의 자연으로도 인식되는 주택정원(박은영, 2011)에 있어서의 공간구성요소는 정원의 소유자의 의도에 맞는 관상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요소의 도입이 고려가 중요하다. 또한 수목의 경우 내한성과 이식의 용의성을 갖춘 수종을 식재하여 경관연출과 차폐, 경계와 같은 공간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는 정원의 여가, 활동, 작물재배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용이 가능한 공간구성이 주택의 정원조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주택정원의 구성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류근석(2006)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주거문화.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4: 33-54.
2. 박은영(2011) 전원주거계획을 위한 실용정원의 디자인 요소해석 및 적용가능성. 농촌계획학회지 17(2): 1-11.
3. 환경과조경(1994) 9: 158-161.
4. 内田 均, 佐藤 誠樹(2002) 東京都内における住宅庭園の植栽管理実態について. 日本造園學會研究發表論文集 65(5): 451-454.
5. 加藤 郁理, 今西 純一, 深町 加津枝, 森本 幸裕(2011) 住宅購入検討者の庭園所持や住宅の線に対する意識についての研究. ランドスケープ研究 74(5): 551-556.
6. 川根あずさ, 愛甲哲也, 浅川昭一郎 北海道恵市恵の野事例とした住民の庭づくりに對する意識と取り組みについて. ランドスケープ研究 63(5): 695-700.